



▶ 의료진들이 참가자들의 혈압을 측정하는 등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 무료진료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

서울시립병원, 대한결핵협회가 함께하는 취약계층 무료 진료

글 박연숙(본지기자)

1월 21일 서울역 광장. 3개 서울시립병원, 서울의료원, 동부, 북부, 장애인치과 등 총8개 시립병원이 참여한 취약계층 무료검진이 있었다. 총 40여 명의 의료진과 각종 진료장비, 이동진료차량 4대가 투입된 대규모 합동진료의 현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날 하루 동안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등의 의료취약계층 193명이 무료검진을 받았으며, 대한결핵협회는 이동검진차량을 지원하여 검진을 실시했다.

1월 21일 첫 무료진료를 시작으로 매월 1회 정기합동검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노숙인,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해 쪽방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을 찾아 무료 진료를 하게 된다. 한편 4월 경에는 시립병원 연합 '나눔 진료봉사단'을 구성, 발대식을 가진 후 좀 더 체계적인 무료진료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

▶ 이날 무료검진에서 엑스레이 검진을 담당한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차량

